

11월 농식품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 중국의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천불)

품목	'11.11	'12.11	증감 %	1위		2위		3위		한국산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자당	222,306	195,604	-12.0	태국	50,343	호주	3,241	말레이시아	2,971	134,344
커피조제품	37,716	54,713	45.1	말레이시아	17,162	베트남	5,204	콜롬비아	3,669	7,036
홍삼	40,270	22,540	-44.0	북한	1,163	-	-	-	-	-
대두유	1,207,337	2,023,817	67.6	브라질	1,124,381	아르헨티나	756,531	미국	137,652	399
조제분유	779,069	924,696	18.7	네덜란드	209,654	싱가폴	206,511	뉴질랜드	169,592	27,898
라면	16,693	28,320	69.7	대만	8,045	홍콩	6,665	이탈리아	1,793	6,322
간장	11,897	12,842	7.9	일본	4,214	싱가폴	3,194	중국	2,268	721
소주	9,657	15,290	58.3	일본	7,175	프랑스	691	호주	618	5,856
채소종자	98.235	97,524	-0.7	일본	27,844	미국	10,393	태국	10,377	6,713

※ 자료원 : 중국 총수입액과 기타 국별 수입액은 www.kita.net,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해관에 타 H.S 코드로 신고하여 한국수출실적보다 적음

※ 중국의 농식품 수출입 동향관련 상무부 자료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음(최근 발표자료는 7월까지임)

□ 향후 시장 전망

○ 수입전망

부류	품목	수입전망
소스류	간장	(2011.12월누계) 1,527천불 → (2012.12월누계) 1,342천불 (12.1%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용도의 중국간장과는 달리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한국특색을 나타내기 어려운 제품이어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으로 작용
	된장	(2011.12월누계) 1,122천불 → (2012.12월누계) 757천불 (32.5%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당을 찾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불고기와 쌈 문화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라벨링 등 통관검사 강화로 수출 감소
	고추장	(2011.12월누계) 3,637천불 → (2012.12월누계) 3,097천불 (16.2%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비빔밥과 떡볶이 등 한식의 현지인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증가추세에 있어 식재료용으로 수입되는 국산 고추장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라벨링 등 통관검사 강화로 수출감소
	마요네즈	(2011.12월누계) 4,355천불 → (2012.12월누계) 6,415천불 (47.3%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채식수요 증가로 마요네즈 수요증가 한국산 마요네즈의 소매가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 수준이나 품질은 일본산과 비슷하여 시장경쟁력이 높음
주류	소주	(2011.12월누계) 5,324천불 → (2012.12월누계) 6,924천불 (30.1%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드라마 시청확대에 따른 소주의 인지도 증가, 낮은 도수, 한식당을 찾는 중국인 증가로 수출 증가전망 경기 침체로 한식당에서의 매출액은 감소추세이나 대형유통매장, 편의점 등의 입점확대로 현지인 시장 확대추세
	맥주	(2011.12월누계) 5,932천불 → (2012.12월누계) 6,239천불 (5.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경, 상해 등 1선도시와 2선도시 주요 대형매장, 백화점 등 현지 주류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증가 전망
	막걸리	(2011.12월누계) 1,272천불 → (2012.12월누계) 1,418천불 (11.5%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막걸리는 교민시장 위주이나 북경 및 상해 주요 대형매장, 백화점 등 현지 주류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증가 전망

부류	품목	수입전망
유제품	생우유	(2011.12월누계) 415천불 → (2012.12월누계) 3,815천불 (819.3%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마트 입점확대, 다양한 브랜드 제품의 진입 등으로 수출량 크게 증가
	조제분유	(2011.12월누계) 23,847천불 → (2012.12월누계) 39,109천불 (64%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소황제 의식과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수입산 분유 수요 급증 매장 입점확대 등 인지도 제고로 수출은 지속 증가할 전망
기타 가공식품	커피류	(2011.12월누계) 50,734천불 → (2012.12월누계) 54,242천불 (6.9%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차 문화에서 서구 커피문화 확산으로 커피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음 스타벅스, COSTA 등 중국 내 커피 프랜차이즈 붐이 일어 젊은 층 유인 한국산 커피는 관세 30%, 증치세 17%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나 뛰어난 동결건조 기술로 커피 향의 보존이 우수하여 중국소비자들이 선호(중국커피는 네스카페 위주)
	유자차	(2011.12월누계) 16,757천불 → (2012.12월누계) 17,839천불 (6.4%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작황 부진으로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증가세 주춤. 수출액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자당	(2011.12월누계) 142,841천불 → (2012.12월누계) 146,777천불 (2.7%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년 원당선물가격은 연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상기후와 투기자본의 가격인상 복병은 여전히 존재. 중국은 원당 정제기술 부족으로 설탕품질이 낮아(알갱이가 큼), 고급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 기피하고 있고, 만성적인 설탕부족 국가로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국산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라면	(2011.12월누계)26,532천불 → (2012.12월누계) 28,642천불 (8.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생산으로 인해 대폭적인 수출확대 어려우나, 현지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은 지속 증가 전망
	비스킷	(2011.12월누계) 15,121천불 → (2012.12월누계) 23,909천불 (58.1%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산 가공식품 대체효과가 큰 품목이자,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 대도시 대형유통매장과 함께 지방도시 로컬 편의점 등으로 판로가 확대되는 등 현지 소비 증가하고 있어 수출 증가 전망
채소버섯류	채소종자	(2011.12월누계) 5,189천불 → (2012.12월누계) 7,945천불 (53.1%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채소종자는 당근, 고추, 무, 배추종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 채소종자는 주로 여름재배위주품목으로 현단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간 수출 또한 증가 전망 * 연간 3~4회의 농사가 가능한 남방시장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팽이버섯	(2011.12월누계) 4,663천불 → (2012.12월누계) 545천불 (88.3%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내 팽이버섯 생산시설 증가로 인한 공급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수출여건 악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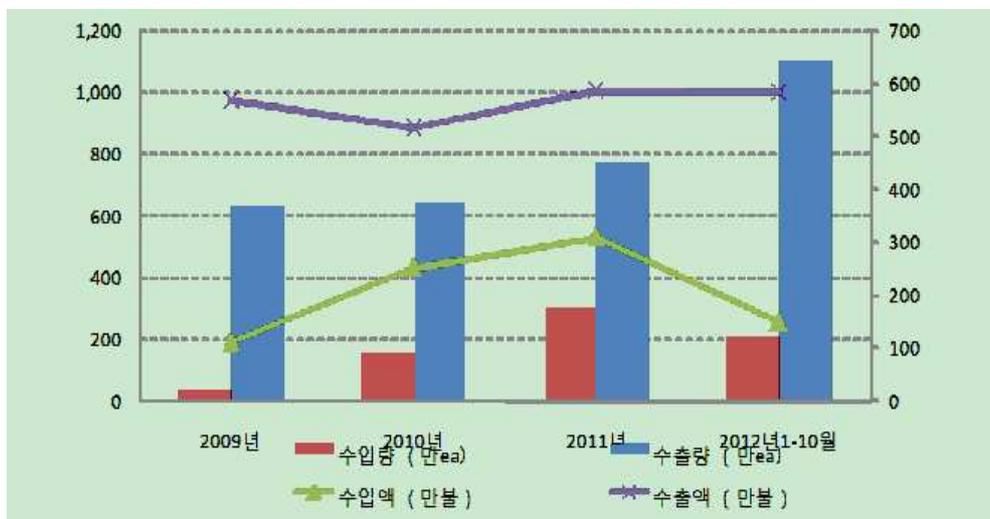
12월 동향(심비디움)

□ 심비디움 수출입동향

단위: 천EA, 천불, 불/EA

연도	수입량	수입액	수입평균가	수출량	수출액	수출평균가
2009	342,578	1,111,000	3.24	6,350,340	5,703,000	0.90
2010	1,564,901	2,520,000	1.61	6,457,461	5,183,000	0.80
2011	3,063,879	3,115,132	1.02	7,732,707	5,886,182	0.76
2012년 (1-10월)	2,076,578	1,486,020	0.72	11,082,892	5,842,032	0.53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해관본부



<2009~2012년 10월 심비디움 수출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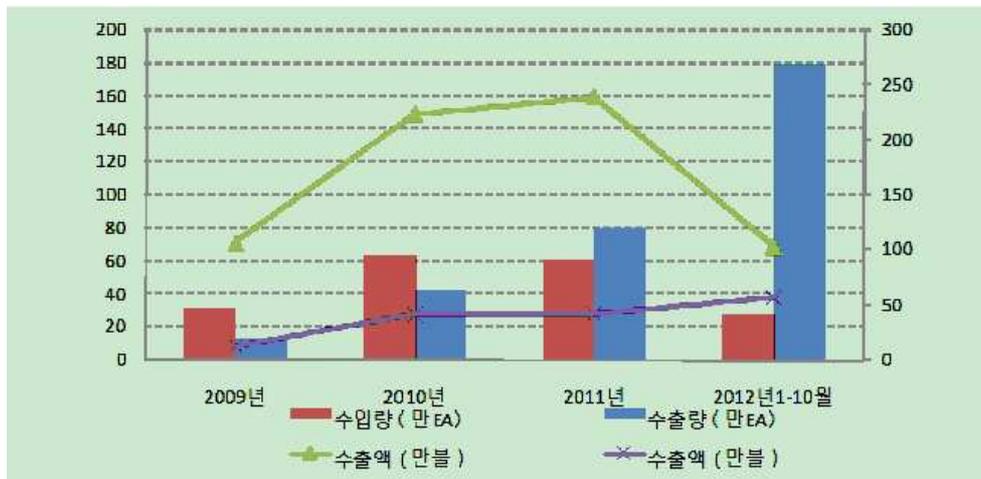
- 2009~2011년 기간 심비디움 수출액 및 수출량은 매년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0년 연간 수출액은 252만불로 2009년 수출액을 141만불을 초과하여, 연평균 126.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2년 11~12월 수출입수치는 아직 통계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전통명절인 춘절기간에 소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전년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2011년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9~2012년 중국 국내산 심비디움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12년 10월까지의 수출량은 이미 2011년 전년의 수출량을 훨씬 초과함.
- 2009~2012년 심비디움의 수출량에 비해 수입단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9년 3.24불/ea에 비해 2012년에는 0.72불/ea로 하락됨. 주요원인은 중국국내 심비디움 생산량의 대폭 증가와 품질상승으로 예상됨.

<2009~2012년 심비디움 대한국 수출입 동향>

단위: EA, 불, 불/EA

연도	수입량	수입액	수입 평균가	수출량	수출액	수출 평균가
2009	309,472	1,059,000	3.42	132,922	12,4000	
2010	630,472	2,232,548	3.54	424,880	40,8048	
2011	606,867	2,390,241	3.94	794,793	409,391	
2012년 (1-10월)	277,741	1,023,047	3.68	1,790,433	564,572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해관본부



- 2010년 한국산 심비디움의 수입량 및 수출액은 2009년에 비해 100%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냄.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수입량은 조금 하락하였지만 수입액은 7% 증가함. 2012년 11~12월 통계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2년 총수입량 및 수입액은 2011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산 심비디움 대한국 수출량 및 수출액은 매년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2년 10월까지의 수출량 및 수출액은 모두 2011년 전년수치를 초과함. 하지만 수출량에 비해 수출액의 증가는 매우 미미함.
- 2009~2011년 한국산 심비디움 평균단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2012년 평균수입단가는 아직 통계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명절기간에 가격이 높기에 2012년 평균수입단가는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산 심비디움의 평균단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3.4~4.0불/EA를 유지하고 있음.
- 2009~2012년 중국산 심비디움 대한국 수출평균단가는 매년 하락세를 나타냄. 2009년~2010년 평균단가 1불/EA에서 2011년에는 0.5불/EA를 나타냄. 전체적으로 중국산 심비디움의 수출평균단가는 한국산 심비디움의 수입평균단가보다 훨씬 낮음.

□ 국가별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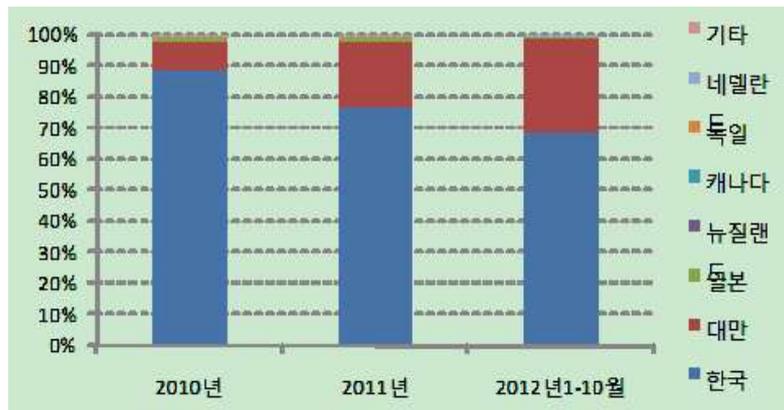
<2010~2012년10월 심비디움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EA, 불, 불/EA

국가별	2010년			2011년			2012년 1~10월		
	수량	금액	평균가	수량	금액	평균가	수량	금액	평균가
한국	630,472	2,232,548	3.54	606,867	2,390,241	3.94	277,741	1,023,047	3.68
대만	919,706	228,422	0.25	2,444,118	654,981	0.27	1,783,850	449,656	0.25
일본	14,071	58,036	4.12	10,471	67,424	6.44	8,566	9,325	--
뉴질랜드	0	0	--	0	0	--	1,103	2,207	--
캐나다	0	0	--	0	0	--	50	1,166	--
독일	0	0	--	0	0	--	4,788	360	--
네델란드	0	0	--	2,023	1,595	--	480	259	--
호주	490	654	--	0	0	--	0	0	--
태국	162	269	--	200	241	--	0	0	--
말레이시아	0	0	--	200	650	--	0	0	--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해관본부

<2010~2012년10월 심비디움 국가별 수입동향>



- 2010~2012년10월 중국은 주로 한국, 일본, 대만 등 지역에서 심비디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3개 국가와 지역에서의 수입액은 총수입액의 99.9%를 차지하며 한국과 대만의 수입금액은 총수입액의 97%이상을 차지함.
- 한국산 심비디움의 수입금액이 총금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대만산 심비디움의 수입액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10%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냄.
- 국가별 심비디움 수입평균단가는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냄. 한국산 심비디움의 평균단가는 3.5~3.7 불/EA, 대만산 평균단가는 0.25~0.27불/EA, 일본산 평균단가는 2010년에는 4.12불/EA, 2011년에는 6.44불/EA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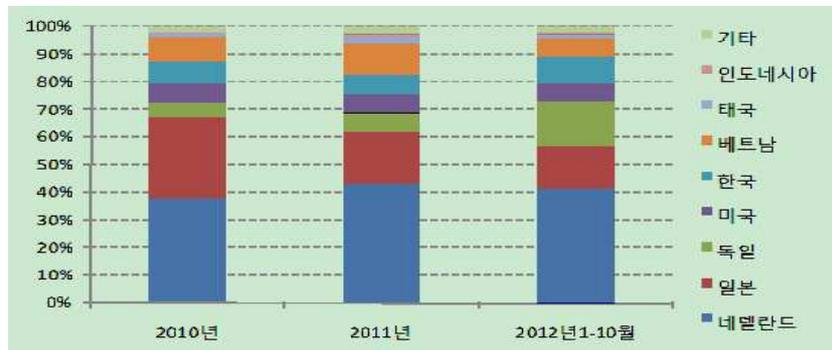
<2010~2012년10월 심비디움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EA, 불

국가별	2010년		2011년		2012년 1~10월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네델란드	2,054,162	1,948,018	2,754,027	2,533,810	2,935,223	2,397,759
일본	1,846,587	1,520,649	1,283,234	1,109,699	1,049,522	907,315
독일	661,070	290,578	787,715	374,763	2,714,182	937,243
미국	656,841	361,661	735,278	424,154	732,626	388,270
한국	424,880	408,048	794,793	409,391	1,790,433	564,572
베트남	414,030	454,086	698,154	672,293	518,358	384,489
태국	283,219	62,620	395,738	127,301	1,152,189	83,888
인도네시아	39,570	31,728	64,860	53,203	75,400	53,398
기타	77,102	105,681	218,908	181,568	114,959	125,098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해관본부

<2011년 냉동딸기 국가별 수출입 현황>



○ 2010~2012년 1~10월, 중국은 네델란드,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등 20개 국가 및 지역에 심비디움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중 네델란드의 수출액이 가장 많고 총금액의 40%를 차지함. 다음은 일본으로 15%~20%를 차지함.

□ 생산 동향

<2011~2013년(E) 명절기간 심비디움 출하량>

단위: 만분

연도	전국출하량	운남출하량	기타지역 출하량
2011년	200	170	30
2012년	230	190	30
2013년	240	200	40

자료원: 중국화훼보

○ 심비디움의 주요생산지는 운남성이며 사천, 산둥에서도 소량 생산되고 있음. 운남성은 심비디움의 주요생산지로서 전국 생산량의 83%이상을 차지함. 2012년 운남성 심비디움 생산기업은 100여개를 초과하여 4.5년전에 비해 4.5배를 초과함.

- 심비디움의 품종에는 큰 변화가 없음. 소부분의 신품종이 개발되었으나 시장출하량은 극 소수임.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품종은 주로 빨간색과 핑크색 품종으로 전체 출하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초록색이 30%, 기타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심비디움의 품질이 많이 개선되고 고품질 심비디움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한국산 심비디움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국내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가격 동향

<2011~2013년(E) 명절기간 심비디움 도매가격표>

단위: 위안/분

품종	2011년	2012년	2013년(E)
4箭 이상 고급	200	200	200
3~4箭 중급	130	130	120~160
저품질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자료원: 중국화훼보

- 품종과 색상에 따라 심비디움의 평균도매가격은 차이가 큼. 2012년 11~12월 평균도매가격은 120~170위안/분임. 2012년 12월말에서 2013년 1월초는 심비디움이 대량 출하하여 도매가격이 20~30% 하락하고 춘절기간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춘절후에는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심비디움은 단독HS코드가 없음. 보고서의 통계수치는 HS코드06029092 난류(종자용 제외)수치임.

※ 자료원 : 베이징aT센터

< 저작권자 © aT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